



전시회에서는 기인적 삶을 살다가 '동양의 피카소' 중광 스님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가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중광 스님.

(김옥수 제공)

# 기인·이단아·파계승... 중광의 예술세계

8월 21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중광 스님 특별전

“반은 미친 듯 반은 성한 듯 사는 게다/ 삼천대천세계는 산산히 부서 지고/ 나는 잠으로 고통해서 넘실 넘실 춤을 추는 거야/ 나는 갈레/ 나 한강에 잉어가 싱싱하니/독주 한통 싣고 배를 띄우라/ 별이랑, 달이랑, 고기랑 때들이 모여들어 별들은 노래를 부르오 달들은 장구를 치오 고기들은 칼을 들어 고기회를 만드오/ 나는 탁주 잔잔 꺾고서 덩실 덩실 신선하게 춤을 추는 게다/나는 갈레 (중광의 '나는 갈레' 中)”

기인적(奇人的)인 삶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갈레 스님' 중광 스님의 특별전 만행(만행) 8월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중광(重光, 1935~2002) 스님은 '갈레 스님'이나 '매드몽크(mad monk)'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주로 기인적인 삶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정규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화단의 이단아이자 파계승이었던 스님의 화업(畵業)은 생장당시 극과 극의 평가를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1960년 통도사에서 출가한 중광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내

기도 했다.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초대전에서 자작시 '나는 갈레'를 남송한 이후 '갈레 스님'으로 불리며 갖가지 기행과 스캔들을 이어가다 1979년 승적을 박탈당했다.

승적 박탈은 슬러 중광을 세속의 굴레에서 또 한번 해탈케 했다. 그는 세속적인 잣대와 무관하게 전방위 예술가로 활동했다. 굵은 붓으로 거침없이 달마와 학, 동자상을 그려냈으며 자신의 몸을 먹통에 담아 그림을 그리고 무식하리만치 흠을 반죽해 단탁한 도자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중광 스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매드몽크'로 미국에 소개한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 동양학과 교수이다. 랭카스터 교수는 스님의 달마도에 반해 중광 스님을 '동양의 피카소'라 칭송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님의 작품성 보다 삶에 더 촛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기인이나 이단을 넘어 선(禪)을 코드로 삶·예술·종교가 하나가 된 대자유인 중광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는 '만물(萬物)이 부처다' '만법귀일(萬法歸一) - 모든 법을

하나로 통한다' '나는 누구인가' 등 3가지 주제로 분류해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필묵으로 달마와 학을 주로 그린 선화(禪畵)와 글씨를 비롯해 아크릴과 브러쉬로 그린 추상과 구상의 유화작품, 도자 테라코타 등 150여점과 시작(詩作)원고, 행위예술, 영화 '허튼소리' '정승가는 길' 등 중광 스님 예술의 전모를 보여주는 50여 점의 선보이다.

또, 스님의 자작시 '나는 갈레'와 생전에 스님이 입고 다녔던 해진 옷도 전시된다.

전시와 함께 어린이박물관 체험 교실 '가까져'에서는 매주 목·토

요일 오전 11시에 전시관람, 점시에 그림그리기, 중광 오브제 모빌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한편, 7월 23일 예술의전당 아카데미홀에서 '한국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중광예술의 성격과 위치'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데 이어 8월 6일 오후 2시 김수용 영화감독의 특강 '나는 왜 '허튼소리'를 만들었나'가 진행된다.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는 "중광에 대해 대중이 기억하는 것은 그의 기행뿐이지만 그는 예술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라며 "중광 스님

은 종단이나 화단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단아였지만 주변의 평가에 아랑곳 않고 예술의 본질을 자유롭게 실천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중광 스님은 세상의 평가에 초연하게 '괜히 왔다 간다'는 말을 남기고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방위예술가로서 중광무진으로 선필을 휘두르고 간 그가 이 세상에 괜히 온 것이 아니라 왜 왔는지를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02)580-1300 이나은 기자



①학 ② 동심(童心) 1983년 ③달항아리(도자에 채색)



##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㉑ 뮤지컬 삼총사

### 17세기 파리의 연꽃 같은 네 청년

2010년 9월 前 외교부부상 장관의 딸의 부정행 특채로 한국은 뜨거웠다. 많은 청년 실업자들과 부모님은 분노했다. 많은 시민들은 자괴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준 사건이다.

때를 맞춰 출판시장에도 이번이 불었다. 허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제목만 보면 도덕 교과서 같은 이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이는 한국사회가 정의를 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을 반증하는 예이다.

특권의 대물림. 이제의 소수 재

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을 받은 학생들은 수능시험 없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삼총사 뮤지컬에서 달타냥이 자주 외치는 대사이다. 그의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한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7월 22~31일 9일간 뮤지컬 삼총사가 공연됐다. 삼총사는 2009년 초연에 이어 2010년 영광공연무대까지 큰 화제를 낳은 작품이다. 화려한 무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신성우, 유준상, 김법래, 엄기준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



벌기엄판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습적 신분사회로 가고 있다.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학력의 격차를 넘어 결국 신분의 차이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은 인턴이라도 되기 위해 입사시험 못지 않은 어려운 절차를 통과한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불쌍한 88만 원 세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턴에도 계층이 있다. 모셔야 하는 상전(上典) 인턴도 있다. 일명 '클라이언트 인턴'이다. 부모가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은 회사가 로비차원에서 1순위로 인턴에 합격시킨다.

대학입학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해 4년제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규모는 4602명으로 확정됐다.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

동해 뭐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

만화와 영화 등을 통해 수없이 작품화된 삼총사는 왕을 호위하는 총사가 되고 싶어 무작정 파리로 올라온 '시골 촌뜨기 달타냥'과 삼총사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의 모험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달타냥과 삼총사가 수호하는 '정의'는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는 다르지만 이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지금 청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틀림없다.

쉽고 편한 욕망의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가장 높고 바른 것을 향한 진정된 용기를 내는 자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청년들이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닷가리, 물과 진흙이 묻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저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책자(카드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0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주얼드림 NAVER 주얼드림

**용왕사**

초개와 같은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한  
 구국의 기도가 아니면 나의사건엔 결코 굴하여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것이다

6.29 민주화의 실천을 추구하는 하늘에 천명(天命)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 3일전 정식공문으로 전달한 동양계일의 심령학자 나라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금룡 김진걸 시집 피와 영혼의 소리 서서 중에서)

**정신병 신병 무속생활 하기 싫은 분 무당 신 책임지고 떼어 드립니다. 철학 심령학 사업 송사 학업고시 등과 병원 등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고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처방 있습니다.**

문의 : 051)852-5879 / 011-599- 5875 (사전예약) 부산 시청 뒤 양정쪽 100m

국가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불교의 꽃, 큰스승 용왕사 金龍大師